‘일타 강사’ 가고 ‘킬러’ 온다

tvN 새 주말드라마 ‘판도라 : 조작된 낙원’

‘펜트하우스’ 김순옥 작가 사단
기억 잃은채 주부로 사는 킬러
운명 조작한 세력 향한 복수극
이지아·이상윤·박기웅 등 케미
이번주 토요일 밤 첫 방송

“복합 장르를 넘어서 ‘복잡 장르’ 입니다.” (최영훈 PD)

드라마 ‘펜트하우스’를 흥행시킨 김순옥 작가 사단이 선보이는 tvN 주말드라마 ‘판도라: 조작된 낙원’ (이하 ‘판도라’)이 오는 11일 오후 9시 10분 첫 전파를 탄다.

‘판도라’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인생을 사는 여자가 잃어버렸던 과거의 기억을 회복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조작한 세력을 응징하기 위해 펼치는 복수극이다.

김순옥 작가가 크리에이터로 참여하고, 김 작가와 작품을 함께 해 온 현지민 작가가 극본을 썼다.

‘펜트하우스’에서 아찔한 복수를 행한 배우 이지아가 주연을 맡았다. 그는 평범한 가정주부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킬러인 홍태라를 연기한다. 홍태라는 사고로 잃었던 기억이 되살아나면서 완벽하다고 믿었던 삶이 뒤흔들리는 인물이다.

이지아는 7일 온라인으로 열린 제작발표회에서 “홍태라는 살인 병기로 키워져서 킬러로 살다가 기억을 모두 잃었고, 현재는 남들 보기에 너무나 완벽한 가정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는 캐릭터”라며 “자신의 운명을 멋대로 설계한 인물들에게 복수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액션 연기를 워낙 좋아해서 신나는 마음으로 촬영에 임했다”며 “킬러라는 설정에 맞게 복근도 만들고, (몸무게도) ‘펜트하우스’ 때보다 5~6kg 빼서 날렵한 액션을 보여주려고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잃었던 기억을 되찾으면서 느끼는 배신감과 점차 고조되는 감정을 표현하는데 신경을 썼다”고 덧붙였다.

연출은 전작 ‘원더우먼’, ‘굿캐스팅’을 통해 유쾌하고 통쾌한 카타르시스를 선사했던 최영훈 PD가 맡았다. 최 PD가 김 작가와 호흡을 맞춘 것은 ‘언니는 살아있다’, ‘다섯손가락’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최 PD는 “‘김순옥표’ 드라마의 빠른 호흡(전개)과 이야기 안에서 일어나는 욕망을 재밌게 표현하려고 인물과 감정에 집중을 많이 했다”며 “거울을 활용한 촬영을 많이 했다. 엄청난 반전이 숨어 있는 16부 엔딩 마지막 장면에서도 거울을 활용한다”고 귀띔했다.

홍태라의 남편이자 차기 대선 후보로 거론되는 IT기업 해치의 의장 표재현 역에는 이상윤, YBC 최고의 메인 앵커 고해수 역에 장희진이 캐스팅됐다. 또 고해수의 남편이자 해치의 경영대표 장도진은 박기웅이, 해치 연구소장이자 해커 기질이 충만한 괴짜 구성찬은 봉태규가 연기한다.

이상윤은 “표재현은 큰 야망을 갖고 있다”며 “누구보다 가족을 사랑하지만, 이루고자 하는 바가 큰 인물이라 두 캐릭터가 공존하는 듯한 인물”이라고 설명했다.

장희진은 “고해수는 상처가 많고 트라우마도 있다”며 “겉으로는 차갑고 도도하지만 속은 여린 친구라 감정신이 매우 많아서 촬영할 때 힘들었다”고 털어놨다.

출연진과 최 PD는 ‘판도라’는 액션, 멜로, 서스펜스 등 여러 장르가 섞여 있는 ‘종합선물세트’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최 PD는 “시청자들이 이 작품을 보면서 ‘무슨 (장르의) 드라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웃었다.

/연합뉴스

해외서 밥장사 도전

‘장사 천재 백사장’ 다음달 2일 첫방

외식 경영 전문가 백종원<사진>이 세계 한식 불모지를 찾아 밥장사에 도전한다.

tvN은 새 예능 ‘장사천재 백사장’을 다음 달 2일 오후 7시 45분에 처음 방송한다고 7일 밝혔다.

‘장사천재 백사장’은 백종원이 한식 불모지에서 직접 창업부터 운영까지 나서는 프로그램이다. 다양한 분야의 프랜차이즈 사업뿐 아니라, 지역 시장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는 백종원의 글로벌 진출기다.

백종원은 자신을 아무도 알지 못하는 글로벌 시장에서 현지인들을 대상으로 오직 요리로 그들의 입맛을 사로잡아야 한다. ‘장사의 신’으로 불리는 백종원이 과연 해외에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구체적인 촬영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티저 영상에 아프리카의 한 노상 식당에서 배우 이장우, 가수 뱀뱀과 함께 장사하는 모습이 담겼다. 또 앞서 이탈리아 나폴리에서는 칠판에 백종원의 이름이 쓰인 백반집이 한국 예능 촬영지라고 현지 언론에 소개되기도 했다.

제작진은 “‘백종원은 밥장사로 어디서든 살아남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시작으로 프로그램”이라며 “”백종원은커녕 한식조차 전혀 알지 못하는 나라에서 어떤 전략으로 음식점을 창업하고 운영해 나갈지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20년차 주부서 의사로 ‘인생 리부팅’

엄정화 김병철 명세빈 민우혁

주말드라마 ‘닥터 차정숙’
JTBC, 다음달 15일 첫 방

배우 엄정화가 20년차 가정주부에서 1년차 레지던트로 인생 ‘리부팅’을 시도한다.

JTBC는 엄정화 주연의 새 토일드라마 ‘닥터 차정숙’을 다음 달 15일 첫 방송 한다고 7일 밝혔다.

‘닥터 차정숙’은 가족이 전부였던 주부 차정숙(엄정화 분)이 뜻밖의 위기에서 죽다 살아난 뒤 가족을 위해 포기했던 전공의 과정에 재도전하며 인생의 대전환기를 맞는 이야기다.

차정숙을 연기한 엄정화는 벼랑 끝에서 인생 재도전에 나선 평범했던 주부의 다이내믹한 변화를 그린다.

차정숙의 깐깐하고 예민한 남편이자 철두철미한 대학병원 외과 과장 서인호는 배우 김병철이 맡았다. 서인호는 1년 365일 품위와 침착함을 유지하는 완벽주의자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할 뻔뻔한 비밀을 가진 인물이다.

서인호(김병철 분)의 첫사랑이자 가정의학과 교수 최승희는 명세빈이, 자유연애주의 외과 의사 로이킴은 민우혁이 연기한다.

최승희는 전국 12개의 종합병원을 소유한 의료재벌의 딸로 세상의 풍파라고는 느껴본 적 없는 인물. 하지만 차정숙에게 첫사랑을 뺏긴 후 남들처럼 평범한 삶을 꿈꾼다. 로이킴은 누구나 사랑에 빠질법한 마성의 남자로 만인의 사랑을 받지만, 누구에게도 진심을 주지 않는다. 그러던 그를 이상하게 신경쓰이게 만드는 이가 바로 차정숙이다.

/연합뉴스